**대표 기도 지침 예문 2020**

지난 10년간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교우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한 질문 중 하나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였습니다. 또 많은 교우들이 대표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어서 대표기도에 관한 지침과 예문을 제시해 드립니다. 꼭 이대로 해야 할 필요는 없고, 이 예문들을 참고로 하여 자신에게 편한 기도문을 만드시면 됩니다.

모든 기도의 마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하므로 일일이 붙이지 않았습니다.

1. 개인기도는 기초양육이나 제자훈련 때 공부한 기도의 요소 (경배, 고백, 찬양, 간구(중보와 자신을 위한 기도)를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2. **식사 기도**

식사 기도는 간단하게 (10-15초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드리는 식사 기도 때에는 간단히 가족이나 아는 이들의 기도 제목들을 포함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임에서 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교제 (모인 목적) 외에는 가급적 다른 내용을 넣지 말고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양식을 통해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음식을 준비한 ( )을 축복하여 주시고, 헐벗고 굶주린 이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교회나 모임에서: “하나님, 귀한 음식을 허락하시고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준비하느라 수고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음식을 통해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1. **소그룹 모임** (구역, 각 교육 부서의 조/반 모임 등)

소그룹 등의 대표기도는 1분 이내로 모인 목적과 유익에 관해 간단히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여기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인도하는 ( )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모든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게 하소서.”

1. **예배**

원칙:

1) 주일 예배, 수요 모임 등의 대표기도는 3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모든 교인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것이므로 교인들이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3) 대표기도의 주제: 예배 시 대표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적인 내용이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데 장애가 되는 내용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읽는 것이 준비한 기도가 되어서 좋습니다.

4) 기도는 경배, 고백, 감사, 간구의 요소(A.C.T.S.)를 갖추는 것을 권합니다.

주의사항:

1) 가끔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기도를 통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설교조의 기도는 피해 주십시오.

2) 대표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을 위한 사적인 기도나 사회-정치적인 내용 등은 가급적 피하도록 합니다. 이런 기도는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외: 큰 사고나 중한 질병으로 위독한 경우, 가족 사망 등의 경우에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는 것, 심각한 재난이나 전쟁 등으로 국가적인 위험이나 고난에 처한 경우, 단기선교와 같은 특별한 사역이아 행사기 있을 때에 이를 위한 기도 등은 필요에 따라 포함해도 좋습니다.)

예문: 이 예문은 최소한의 골격만을 제시하니, 이를 골자로 하여 자신에게 편한 문장과 표현으로 살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교회/교인을 대표하는 기도이므로 교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기도가 되도록 정리하시고, 인칭대명사를 ‘나’가 아니라 ‘저희/우리’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1. 경배: 경배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우리를 회복(구원, 대속)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1. 고백: 고백은 나 자신 혹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때마다 저희는 한없이 부족하고 죄인됨을 깨닫게 (느끼게) 됩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순종하려 노력하지만 그래도 부족하기만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하는 죄인들입니다.)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이 예배를 통해 은혜와 위로와 평안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감사와 고백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므로 다시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는 용서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1. 감사: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믿음의 여정을 가는 동안 (혹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곳에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교회를 세우셔서 많은 영혼들(*유학생들과 방문하는 분들, 또 주민 등*)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쉽지 않은 미국 생활을 감당해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교회나 교우들을 돌보심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포함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마세요.)

1. 간구: 간구는 현재의 상황을 보고 미래를 바라보며 필요한 내용을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세상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교우(들)을 위해서 짧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나 대표기도는 예배를 위한 기도이므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구함으로써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2. 교회를 위한 간구: 주일학교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와 청년부, 구역 등을 위하여. 예배를 섬기는 예배위원들과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위해.

(주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하면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성가대만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인이 함께 찬양을 드리고 있고 성가대는 대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므로 성가대의 찬양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1. 교우를 위한 간구: 특별히 큰 사고나 질병으로 치유와 도우심이 필요한 경우 (꼭 대표기도에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2. 절기/계절/행사에 필요한 기도 - 예: 신년예배, 창립기념예배,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등. 여름에는 단기선교를 위해서, 또 새가족을 위해서 (정착과 좋은 출발을 위해, 우리가 그들을 잘 섬기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3. 예배를 위한 기도로 끝맺는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은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마지막의 “기도합니다”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형으로 합니다.)

이 예문을 골격으로 하여 본인이 편하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3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